

2020년 5월 전문건설업(SC) 경기실사지수(BS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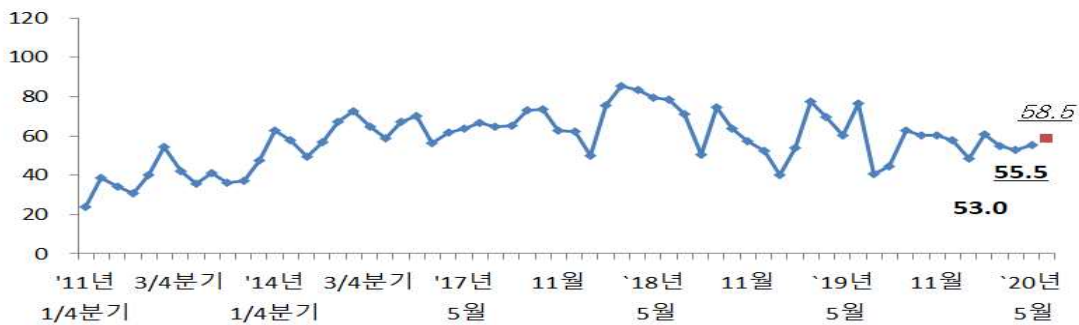
I. 2020년 5월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6월 전망

○ 5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과 유사, 6월은 소폭 하락 전망

- 5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<sup>1)</sup>는 전월(53.0)과 비슷(55.5)했으며 이는 기존 전망치(49.4)를 상회하는 수준임. 6월(58.5)의 전망치는 전년 동월(76.3)보다 낮게 조사되었지만, 건설투자를 늘리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기조는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됨<sup>2)3)4)</sup>.
-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60.0(45.9→60.0)로 상승한 반면, 지방은 54.3(55.1→54.3)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.

<표-1> 2020년 5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5월 전망

구분	종합	지역	
		수도권	지방
2020년 5월 평가	55.5	60.0	54.3
2020년 6월 전망	58.5	60.0	58.1



[그림-1]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

- 1)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월간조사로 변경되었으며, 그 이전의 추이는 종전까지 분기조사로 집계된 경기실사지수값을 이용함.
- 2) 현재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기준을 1,000억 원(종전 500억 원)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. 지난 21년간 유지된 동 기준의 상향은 SOC투자 등의 빠른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.
- 3) LH의 경우에는 작년의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용역발주 계획을 수립함.
- 4) 참고로 최근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업체수와 전문면허의 등록수가 함께 늘어나는 양상이 보고됨.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1,771개의 전문건설업체와 3,289개의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건수가 증가함. 이는 통상의 2~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, 주요 원인으로서는 고용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(2019.6)되면서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30% 하향조정된 것을 들 수 있음.

## II.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

### 1. 공사수주지수 (원도급, 하도급)

○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소폭 하락, 하도급은 전월과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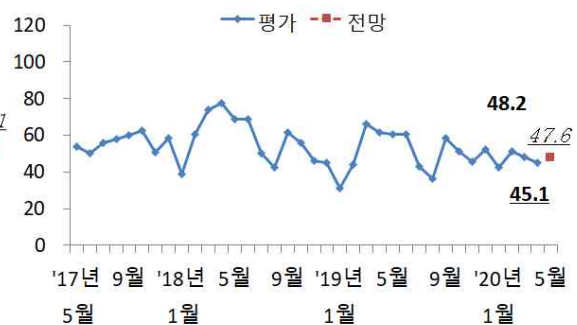
-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은 53.0(56.1→53.0)으로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했으나 유의할 정도는 아님. 하도급은 45.1(45.1→45.1)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됨. 하지만 추후 정부의 건설투자 증대가 차츰 궤도에 오르면서 수주상황은 차츰 호전될 가능성이 높음<sup>5)</sup>.
-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(45.9→54.3)은 전월보다 크게 개선된 반면 지방(59.1→52.7)은 하락한 양상을 보였음.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(35.1→40.0)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지방(48.0→46.5)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.

<표-2> 2020년 5월 전문건설업 원·하도급 공사수주지수 (비교)

구분	종합	지 역	
		수도권	지방
원도급	'20년 5월 평가	53.0	54.3 / 52.7
	'20년 6월 전망	56.1	57.1 / 55.8
하도급	'20년 5월 평가	45.1	40.0 / 46.5
	'20년 6월 전망	53.7	62.9 / 51.2



<원도급>



<하도급>

[그림-2] 원·하도급 공사수주지수 추이

5) 금년 말까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가 2배 상향되고, 1회 유찰시에는 재공고없이 수의계약을 가능케 한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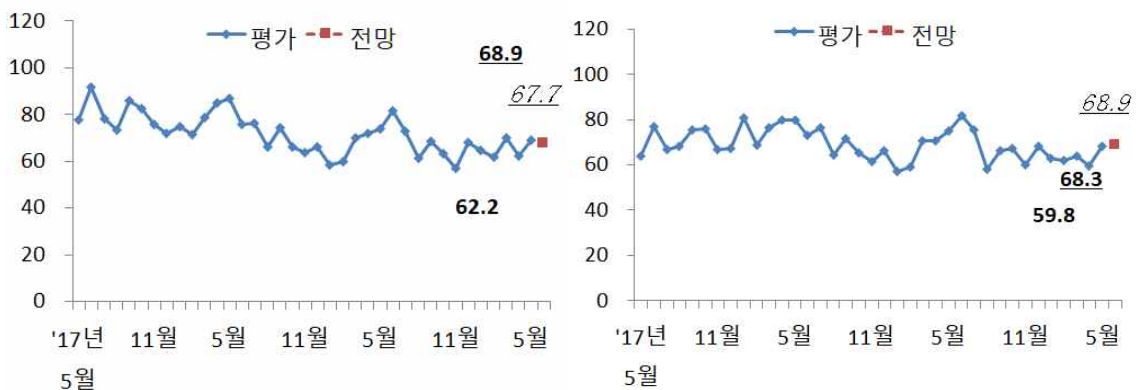
## 2. 자금관련지수 (공사대금수금, 자금조달)

○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상승, 자금조달지수도 상승

-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68.9(62.2→68.9)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월(74.0)의 수준에도 근접한 것임.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도 68.3(59.8→68.3)로 개선되었으며 역시 전년 동월(75.1)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됨<sup>6)</sup>.
-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수도권(62.2→65.7)에서 소폭 상승했으며, 지방(62.2→69.8)도 동일한 양상으로 소폭 개선됨.
- 자금조달지수도 수도권(54.1→68.6)에서 종전보다 매우 큰 상승을 보였으며 지방(61.4→68.2)도 상승추세를 나타냄.

<표-3> 2020년 5월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(비교)

구분		종합	지 역	
			수도권	지방
공사대금수금	'20년 5월 평가	<b>68.9</b>	65.7	69.8
	'20년 6월 전망	<b>67.7</b>	65.7	68.2
자금조달	'20년 5월 평가	<b>68.3</b>	68.6	68.2
	'20년 6월 전망	<b>68.9</b>	71.4	68.2



<공사대금수금>

<자금조달>

[그림-3]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추이

6) 참고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평균잔액 기준 광의통화(M2)의 규모가 3,000조 원을 넘어섰는데, 원인으로서는 낮은 기준금리에 따른 유동증가와 함께 기업들이 경영상의 현금확보에 나선 것 등이 지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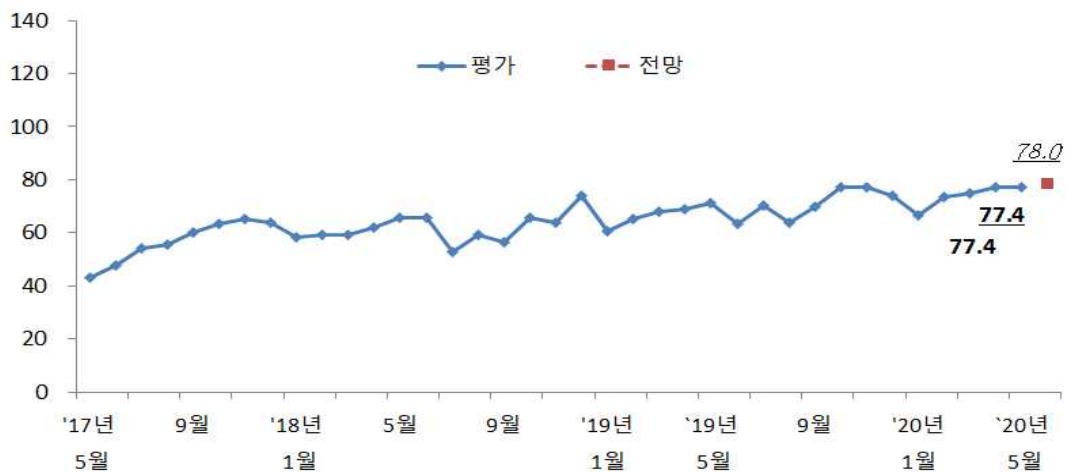
### 3. 인건비지수

○ 인건비지수는 전월과 동일

- 인건비 경기실사지수는 77.4(77.4→77.4)로 전월과 동일하게 집계됨. 이는 전년 동월(71.0)보다는 소폭 낮지만 크게 유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. 주요 건설현장 등에서도 인력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짐<sup>7)8)</sup>.
-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(78.4→71.4)은 전월보다 상승했으며 지방(77.2→79.1)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함.

<표-4> 2020년 5월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(비교)

구분	종합	지 역	
		수도권	지방
인건비	2020년 5월 평가	77.4	79.1
	2020년 6월 전망	78.0	79.1



[그림-4]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추이

7) 참고로 통계청의 '2019년 고령자 통계'에 따르면 건설업의 고령취업자수는 66만 5천명으로서 지난 '14년의 46만 5천명에 비해 약 20만 명의 고령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.

8) 장기적으로는 SOC 등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몇 년 간은 SOC 등 공공투자에 소요 되는 기능인력의 수급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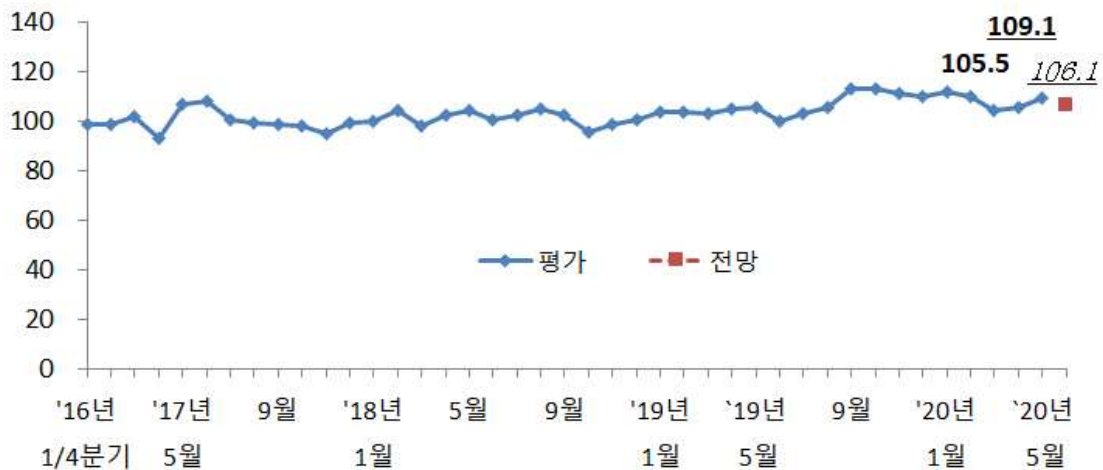
#### 4. 자재수급지수<sup>9)</sup>

○ 자재수급지수는 소폭 상승

-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109.1(105.5→109.1)로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함. 자재단가와 인상폭 등을 둘러싸고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자재단가가 문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인 문제는 아닌 상황임<sup>10)11)</sup>.
- 지역별로는 수도권(108.1→105.7)은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, 지방(104.7→110.1)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.

<표-5> 2020년 4월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(비교)

구분		종합	지 역	
			수도권	지방
자재수급	2020년 5월 평가	<b>109.1</b>	105.7	110.1
	2020년 6월 전망	<b>106.1</b>	102.9	107.0



[그림-5]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추이

- 9)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.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,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기 때문임.
- 10) 업계에 따르면 금년 1분기의 국내 철근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약 19%가량 감소했으며, 시중의 유통가격은 전년 동기의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짐.
- 11) 업계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시작된 레미콘 운반비의 인상움직임이 조만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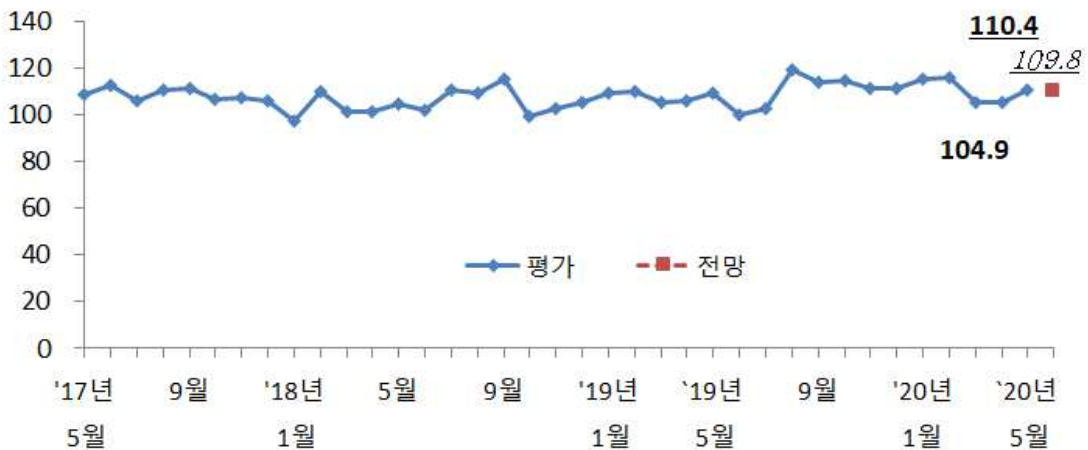
## 5. 건설장비수급지수

○ 장비수급지수는 하락

- 장비수급지수는 110.4(104.9→110.4)으로 전월과 유사했으며 전년 동월(108.9)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었음. 현재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부각되는 장비수급문제는 찾아보기 어려움<sup>12)</sup>.
-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(105.4→105.7)은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음. 반면 종전과 달리 지방(104.7→111.6)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기록됨.

<표-6> 2020년 4월 전문건설업 건설장비수급지수 (비교)

구분	종합	지 역	
		수도권	지방
장비수급	2020년 5월 평가	110.4	111.6
	2020년 6월 전망	109.8	110.9



[그림-6] 전문건설업 건설장비수급지수 추이

12) 다만 최근 들어 건설기계노조의 업무방해행위에 건설기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사례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.

※ 참고: 2020년 5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

구분		전체	지역		
			수도권	지방	
전문건설업 경기		금월 평가	<b>55.5</b>	60.0	54.3
		차월 전망	<b>58.5</b>	60.0	58.1
공사물량	원도급	금월 평가	<b>53.0</b>	54.3	52.7
		차월 전망	<b>56.1</b>	57.1	55.8
	하도급	금월 평가	<b>45.1</b>	40.0	46.5
		차월 전망	<b>53.7</b>	62.9	51.2
자금사정	공사대금 수급	금월 평가	<b>68.9</b>	65.7	69.8
		차월 전망	<b>67.7</b>	65.7	68.2
	자금조달	금월 평가	<b>68.3</b>	68.6	68.2
		차월 전망	<b>68.9</b>	71.4	68.2
인건비		금월 평가	<b>77.4</b>	71.4	79.1
		차월 전망	<b>78.0</b>	74.3	79.1
건설자재 수급		금월 평가	<b>109.1</b>	105.7	110.1
		차월 전망	<b>106.1</b>	102.9	107.0
건설장비 수급		금월 평가	<b>110.4</b>	105.7	111.6
		차월 전망	<b>109.8</b>	105.7	110.9

문의: 이은형 (책임연구원, eunhyung@ricon.re.kr, 02-3284-2615)